

남주혁 “조제’, 원작 부담됐지만 후회없이 연기했다”

“영화 속 동네에 평범하게 살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섬세하게 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연기했어요.”

배우 남주혁이 영화 ‘조제’에서 조제의 세계에 들어온 남자 ‘영석’ 역으로 분했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보건교사 안은영’, tvN 드라마 ‘스타트업’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남주혁은 ‘조제’를 통해 스크린에서도 관객들을 만난다.

남주혁은 7일 화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감독님이 만드는 ‘조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다”며 “원작과 큰 틀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감독님의 말씀이 제게도 도전적인 의미로 다가왔고, 같이 만들어가고 싶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조제’는 지난 1985년 발간된 작가 다나베 세이코의 소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원작이다. 2003년 제작돼 이듬해 국내에 개봉한 이누도 잇신 감독의 동명의 영화가 큰 사랑을 받았다.

남주혁은 “원작을 생각하며 연기하면 저만의 ‘영석’을 온전히 보여줄 수 없을 것 같다”며 “시나리오를 보고 연기할 때는 원작의 어떠한 장면도 보지 않았다. 봤다면 따라하기밖에 안 됐을 것 같다. 저만의 방식대로 ‘조제’의 ‘영석’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제의 세계로 들어온 남자 ‘영석’ 역… ‘평범해 보이고 싶었다’

‘조제’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잊을

다나베 세이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원작 “저만의 방식대로 ‘조제’의 ‘영석’ 만들어보고 싶어”

수 없는 이름 ‘조제’와 ‘영석’이 함께한 가장 빛나는 순간을 그린 영화다. 대학 졸업을 앞둔 ‘영석’이 우연히 자신을 ‘조제’로 불러 달라는 한 사람을 만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평범한 일상과 거리가 있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살아온 ‘조제’가 ‘영석’과의 만남으로 변화해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남주혁은 ‘영석’을 연기하며 ‘평범함’에 집중했다. 그는 “실존 인물처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조제’ 작품 속에서 날 것 같은 연기를 해보고 싶었다”고 돌아봤다.

“평범해 보이고 싶었어요. 평범함 속에 다양함을 보여주고 싶었죠. 2000년대 초반의 멜로 영화 등 많은 작품과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죠. 그 당시의 선배님들처럼 20대 나이의 날 것 같은 연기를 고민했어요. 감독님과의 한 신 한 신 촬영하면서 많이 소통했어요.”

‘영석’과 닮은 점을 묻자 그는 “스스로 봤을 때 저 역시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고 답했다. 남주혁은 “연기 외의 상황에서는 부끄러움도 많고 수줍음도 많다”며 “다른 점은 평상시에 그렇게 체크 남방을 입지는 않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면서 “닮은 점을 계속 찾으려 노력했던 것 같다”고 수줍게 웃었다.

‘조제’는 ‘영석’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아간다. 남주혁은 극 중 ‘영석’이 ‘조제’를 만나고 사랑하게 된 순간부터 모든 장면이 감정적으로 중요했다고

했다. “‘조제’는 ‘영석’을 통해 집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영석’은 ‘조제’를 통해 책임감이나 성숙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죠. ‘영석’을 연기할 때 제 마음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조제’의 신발 밑창이 더러워지지 않았으면,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영석’이 책임감 있게 세상 밖을 마음껏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연기했죠.”

한지민과 두 번째 호흡 “존중해주고 배려…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

‘조제’를 연기한 한지민과는 두 번째 만남이다. 남주혁은 한지민과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호흡을 맞췄다. 그는 “힘을 합쳐서 더 멋진 장면을 두 시간에 딱딱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부담감보다는 잘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로 깊게 소통할 수 있었고, 감독님과 배우들의 마음이 잘 맞았어요. 지민 선배님과는 전작에서 한번 호흡을 맞췄기에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죠.”

특히 한지민은 배울 게 많은 배우라고 극찬했다. 남주혁은 “보여지지 않은 모습 속에서 지민 선배님은 조제와 닮아있다”며 “생각도 많고, 옆에서 혼자 걸지 않게 발을 맞춰주는 느낌이 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싶고, 함께 걸어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



했다. “지민 선배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을 많이 해주고 편하게 해주요. 연기할 때도 상대 배우의 장면임에도 최선을 다해주죠.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 없겠구나 싶었고, 저도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민 선배님은 늘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지난 2018년 개봉한 스크린 데뷔작 ‘인사성’ 이후 투톱 주연이다. 남주혁은 “너무나 감사한 순간들”이라며 “부담감도, 걱정도 많지만 그래도 작품에

서 연기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걸 쏟아 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다”고 말했다.

“남주혁보다 작품 속 인물로 각인됐으면”

그동안 여러 작품에서 청춘의 이야기를 그리는 남주혁의 고민은 필가. 그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불안하다. 작품을 할 때 행복하지만 많이 고민하게 된다”며 “인간적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배우로서는 대중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비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중들이 작품을 보고 남주혁이라기보다는 그 인물 자체로 느꼈으면 해요. 작품마다 캐릭터에 푹 빠져서 연기하려고 노력하고, 늘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런 모습이 연기하는 순간에 잘 담겨서 작품 속 인물로 많은 분들께 각인됐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여러 작품과 장르에 도전하고 잘 해내서 새로운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조제’는 10일 개봉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극장가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남주혁은 “상황이 어렵지만, 안전하게 작품을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조제’는 제게 또 한 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함께 작품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줬고,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 작품이죠. ‘조제’를 보신 관객들에게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특별한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이미·코요태·더보이즈, 나란히 ‘겨울 시즌송’

‘5가지 크리스마스(Christmas)’·‘영풍한 상상’·‘크리스마시(Christmassy!)’

올해도 겨울 시즌송이 잇따라 발매된다.

가수 제이미(Jamie)가 9일 음원 사이트에 디지털 싱글 ‘5가지 크리스마스(Christmas)’를 발표했다. 따뜻한 스트링과 R&B 선율이 어우러진 도입부와 함께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리듬이 인상적인 팝 장르다.

겨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캐럴이다. 제이미가 캐럴을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5가지 사랑의 언어(Love Language)’라는 소재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다섯 가지 종류에 대한 이야기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에게도 이 모든 걸 채워줄 사람이 나타날까?’라는 내용을 노랫말에 담았다.

음원과 함께 공개되는 뮤직비디오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는 제이미의 모습을 담았다. 흥에 겨워 댄서들과 춤을 추는 등 제이미의

밝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올해 4월 워너뮤직코리아에 합류한 제이미는 ‘넵버스’, ‘아폴로 11’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최근에는 ‘비긴어게인’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 오픈마이크 시리즈 첫 주자로 나섰다.

흥성 그룹 ‘코요태’도 이날 오후 6시 음원 사이트에 겨울 시즌송 ‘영풍한 상상’을 발표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지누가 1996년 발매한 동명의 곡을 리메이크했다. 하우스풍의 댄스곡이다. 곡 시작과 동시에 흘러나오는 인트로 사운드는 90년대 중반의 풋풋한 감성을 선사한다. 뺨가의 상쾌한 랩과 김중민의 허스키한 목소리, 신지의 시원한 보컬이 어우러졌다.

지난 여름 코요태의 ‘바다’ 리메이크 작업을 도운 AOB엔터테인먼트의 위드(WITH·김성위)와 팔사사

운드(8ballsound)의 김성태가 프로듀싱을 맡았다.

그룹 ‘더보이즈(BOYZ)’는 지난 7일 데뷔 3주년 기념 스페셜 싱글 ‘크리스마시(Christmassy!)’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팝 하우스 장르의 곡으로 하이틴 윈터송을 표방한다. 종소리 등 कै를 연상하는 악기와 멤버들의 음색이 어우러졌다.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다가를 연달, 크리스마스가 주는 설렘을 표현했다.

뮤직비디오는 하이틴 영화 속 ‘프롬 파티’ 콘셉트로 촬영됐다. 더보이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반짝이고 설레는 크리스마스 같다는 이야기를 담은 고백이다. ‘크리스마시(Christmassy!)’가 많은 사랑을 받아 매년 겨울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윈터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연석·유인나 ‘새해전야’ 30일 개봉 확정

네 컷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의 일주일 그려

유연석·유인나 등이 주연한 로맨스 영화 ‘새해전야’가 30일 개봉을 확정했다고 배급사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가 9일 밝혔다.

영화는 네 컷을 중심으로 두려움과 설렘 가득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의 일주일일을 그린다.

김강우와 유인나는 지난 사랑의 실패로 새로 찾아온 사랑을 두려워하는 지호와 효영으로 분했고, 유연석과 이연희는 청춘들의 풋풋한 감정을 그려

냈다. 이동휘, 천두령, 염혜란은 국제결혼 준비 속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예비 가족으로 만났다.

최수영과 유태오는 주변의 편견에 조금씩 흔들리는 오랜 연인으로 등장한다.

‘키친’(2009), ‘무서운 이야기’(2012), ‘결혼전야’(2013),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2016) 등을 연출한 홍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윤아 X 장성규 X 김선호, MBC 가요대제전 MC

31일 비대면으로 진행

그들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임윤아, 방송인 장성규, 배우 김선호가 ‘2020 MBC 가요대제전’ MC를 맡는다.

MBC는 8일 임윤아, 장성규, 김선호가 ‘2020 MBC 가요대제전’ MC로 나선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함께 진행을 맡은 임윤아, 장성규에 최근 예능, 드라마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선호가 MC로 나선다. 지난 2015년부터 ‘MBC 가요대제전’ MC 자리를 지켜온 임윤아는 올해도 어김없이 MC로 발탁돼 6년째 시



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지난해 임윤아와 함께 환상 케미를 보여줬던 장성규도 함께 한다. 임윤아와 장성규는 두 번째 만남인 만큼 노련하고 재치 있는 진행이 기대된다. 김선호도 MC 대열에 합류해 새로

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올해 드라마와 예능에서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며 ‘대세 배우’로 떠오르는 김선호는 데뷔 이후 첫 MC에 도전한다. 한편 ‘2020 MBC 가요대제전’은 오는 31일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이하이, ‘16일 신곡 발표…크리스마스 겨울 감성’

가수 이하이가 오는 16일 컴백한다. 이하이는 지난 8일 소속사 AOMG 및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새로운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오는 16일 오후 6시 신곡 발매를 알렸다.

티저 영상 속에서 이하이는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메모장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beating for you’라고 노래하는 이하이의 매력적인 음색이 이어진다.

앞서 이하이는 ‘A gift For You’와 ‘What’s on the list?’ 티저 영상을 공개하고 크리스마스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와 선물 상자 속 ‘TO DO LIST’가 적힌 메모장으로 연말 컴백을 암시했



다. 지난 7월 AOMG에 합류 후 싱글 앨범 ‘홀로’를 발매한 이하이는 tvN 드라마 ‘청춘기록’ OST ‘Brave Enough’

와 크러쉬의 새 앨범 ‘with HER’ 수록곡 ‘Tip Toe’에 참여한 데 이어 5개월 만에 자신의 노래로 가요계에 컴백한다.

주지훈, ‘아시아 모델 어워즈’ 아시아 스타상 수상

주지훈이 지난 5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15회 아시아 모델 어워즈(Asia Model Awards)에서 배우 부문 아시아 스타상을 받았다고 소속사가 8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아시아 모

델 어워즈는 모델, 패션, 뷰티 분야 및 유명 모델 스타, 한류스타를 포함, 각 분야에서 활약한 최고의 모델과 스타를 선정하는 아시아 최대 모델 행사다.

주지훈은 영상을 통해 “제가

2017년에 아시아 모델 어워즈에서 상을 받았던 것 같다. 그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또 수상을 하니 감회가 남다르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뉴스